

## 광주·전남 새해 벽두 ‘코로나 폭발’...누적 2000명 육박

일일 기록 경신·17일째 두자릿수...4차 유행이 60%

요양시설·의사동호회·종교시설서 잇단 집단 감염

감염원 불분명 ‘n차 전파’에 당국 초긴장...피로감 ↑

겨울 추위와 함께 불어 닥친 광주·전남지역  
코로나19 확산세가 신축년 새해 벽두부터 매  
섭다. **관련기사 8면**

17일째 두 자릿수 확산을 이어오더니 새해  
첫 휴일인 3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명  
을 넘어지면서 종전기록을 갈아치웠다.

누적 확진자가 2000명을 향해 치달고 있는  
가운데 지역내 감염이 90%를 넘어지고, 무증  
상 확진 또는 감염원 미상에 따른 ‘조용한 전  
파’와 지역 간, 가족 간 감염도 적지 않아 방역  
당국과 지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.

◇누적 1791명, 4차 유행 1000명 돌파...광  
주 130일 만에 최다

3일 광주·전남 시·도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  
난해 2월 초 지역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  
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는 광주 1202명, 전남  
589명 등 합쳐서 1791명에 이른다.

이 가운데 해외 유입을 뺀 지역 내 감염자는  
광주 1106명, 전남 529명 등 총 1635명으로,  
전체 확진자의 91.3%에 달한다. 광주의 지역  
감염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, 광주·전남 지  
역 감염률도 최근 두 달새 가장 높다.

지역 내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1월7  
일 이후 확진자는 광주 689명(해외유입 30명  
포함), 전남 392명(해외 14명) 등 모두 1081명  
으로, 이 역시 1000명 선을 넘어섰다. 전체 확  
진자의 60%가 4차 유행에서 발생했다. 유행

기간도 두 달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장기화될  
조짐이다.

일일 확진자 기록도 다시 썼다. 이날 오후 2  
시 현재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 입원 환자  
53명과 직원 9명(전날 확진 7명 포함)이 한꺼  
번에 확진되면서 성림침례교회 관련 확진자가  
쏟아진 8월26일(39명) 이후 130일 만에 최다  
치를 기록했다. 전남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22  
일 48명(광주 36·전남 12) 발생 이후 12일 만  
에 일일 최다 기록이다.

지난 2월 이후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코  
로나19 청정지역은 광주·전남 27개 시·군·구  
가운데 장흥과 강진이 유일하다.

◇요양시설 초비상...의사모임, 교회도 연쇄  
감염

감염병에 취약한 겨울 추위와 외부 바이러  
스 유입에 따른 요양시설발(發) 무더기 감염이  
현실화되고 있다. 고령의 기저질환자들이 많  
고, 특정 장소에서 밀집생활을 하는 곳여서  
“한 번 돌리면 건잡을 수 없다”는 게 전문가들  
의 진단이다.

광주에선 효정요양병원에서만 환자와 종사  
자 등 이틀새 62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.이 병  
원에는 입원 환자 293명, 종사자 152명 등 총  
445명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. 고위험 시설  
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검사 과정 중  
전날 건물 2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7명이 1차

확진된 이후 전수조사에서 환자들이 대거 양  
성 판정을 받았다.

광주에서는 앞서 지난해 12월 북구 에버그린요양  
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, 35명이 확진됐고, 또  
다른 요양시설과 사우나, 지인과 가족 등으로  
‘n차 감염’되면서 모두 63명의 확진자가 나왔  
다. 7월에도 아가페(8명), 한울요양원(12명)에  
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. 효정요양병원은 광  
주에서는 4번째 요양원 내 집단 감염이다.

광주 청사교회와 의사체육동호회 관련 확진  
자도 각각 40여 명과 20여 명에 달하는 등 대면  
접촉에 따른 집단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.

감염경로 조사 알 수 없는 오리무중 확진과  
무증상 확진, 산발적 지역 감염에 따른 n차 감

염도 끊이지 않고 있다. “코로나19 바이러스가  
일상 생활 깊숙히 침투한 것 같다”는 게 방역  
당국의 판단이다.

◇“외부 유입·가족 간 감염 등 촉각”

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어진 9일간의 연말  
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광주·전남에서 209  
명, 하루 평균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, 전국  
적으로도 매일 1000명 안팎이 코로나19에 감  
염되자 광주시와 전남도는 ‘5명 이상 모임금  
지’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 
간 더 연장했다.

‘감염 아킬레스건’인 요양시설 면회와 다른

지역 교류행사나 초청행사 등을 전면 금지하  
고, 종교활동 참여 인원도 30% 이하로 최소화  
했다.

시·도 방역당국은 특히, 수도권 등으로부터  
의 외지 유입이나 가족 간 감염에 촉각을 곤두  
세우고 있다. 실제 광주에서만 최근 1주일새 가  
족 간 전파 사례만 17가족에 40명을 넘어섰다.

이용섭 광주시장은 “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 
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를 벗어야  
하는 대면식사, 음주, 흡연은 매우 위험하니 피  
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 또 “가족 행사나 모임, 여  
행 등은 자제하고, 매일 집을 주기적으로 환기,  
청소, 소독하는 일도 중요하다”고 덧붙였다.

신봉우기자



새해 첫 일출 2021년 신축년(辛丑年)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역 뒤로 해가 떠오르고 있다.

## 광주 도심 차량속도 ‘30~50km’제한...시·경찰, 교통시설물 설치

4월17일 설치 후 3개월 유예기간 거쳐 속도위반 단속 실시

광주 도심의 차량 속도가 오는 4월17일 부  
터 30~50km로 제한된다.

광주시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오는 4월  
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‘안전속도 5030’ 정책

에 앞서 선제적으로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  
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.

‘안전속도 5030’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 
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

도로는 50km/h(필요시 60km/h), 주택가 등 이  
면도로는 30km/h 이하로 도시부도로의 제한속  
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  
전정책이다.

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 
지난 2019년 4월17일 공포됐으며, 지방자치단

체의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소요기간 등을  
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2021년 4월부터  
시행된다.

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왕  
복 5차로 이상 시청로, 왕복 4차로 도로인 월드컵  
동·서로 등 시내 도시부 도로 83개 구간(총  
연장140.4km)에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해 제한  
속도를 60km/h에서 50km/h로 하향조정했다.  
30km/h 하향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3월까지

완료한다는 계획이다.

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  
면서 교통환경을 감안해 소통상 필요 도로인  
상무대로 등 30개 구간 140.6km에 대해서는 60  
km/h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.

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“보행자와 운전자  
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  
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  
기동취재본부

한국언론진흥재단  
Korea Press Foundation

#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

코로나19,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!

강도 높은 #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

외출을 자제하고  
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!

마스크 쓰기, 손씻기 등  
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!

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 
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!